

삼국유사 고판본과 파른본의 위상

김 상 현*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三國遺事』 初刊本の 문제 |
| 2. 『삼국유사』의 찬자와 편찬 시기 | 5. 여러 고판본과 파른본 |
| 3. 王曆篇의 문제 | 6. 맺는말 |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파른본 『삼국유사』를 다른 여러 고판본과 비교하여, 그 특징과 위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삼국유사』에는 권1부터 권4까지는 저자가 기록되지 않고, 권5에만 國尊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住持圓徑冲照大禪師一然撰이라는 저자명이 보인다. 저자의 職銜에 諡號 普覺이 포함되지 않았음에 유의하면, 일연이 國尊에 책봉되고 79세로 인각사 주지가 되었던 1285년 이후로부터 84세로 입적한 1289년까지의 일연 생존 시에 『삼국유사』

는 제5권까지 모두 脫稿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일연의 제자 無極이 덧붙인 기록이 두 군데 있지만, 無極은 자신이 덧붙인 기록에 無極記라고 밝혀 원래의 원문과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무극은 『삼국유사』를 간행·유통시켰을 것인데, 아마 이것이 초간이었을 것이다. 물론 고려 시대에 『삼국유사』가 간행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비록 고려 공민왕 10년(1361)에 작성된 전적에 『삼국유사』가 인용된 사례가 있지만, 이 또한 간행본인지 필사본인

* 동국대 명예교수, 한국사.

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조선 초의 고간본을 초간본으로 보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闕字와 避諱代字 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조선 초기 고판본에도 靑자의 사례가 여러 차례 보인다. 枰본에는 글자를 새기지 않은 채 빈칸으로 남겨둔 것이 왕력 및 권1과 권2에서 18곳에 이른다. 고려 혜종의 휘 武자를 대신해서 虎자를 쓴 사례와 성종의 휘 治자를 대신해서 理자를 쓴 사례는 대단히 많다. 이처럼 고려시대의 피휘법이 적용된 사례가 많은 것은 고려시대에 이미 존재했던 초판본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피휘법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초기 重刊時에 고쳐졌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 초에 간행된 고간본 『삼국유사』는 석남본, 송은본, 니산본, 조종업본, 범어사본, 枰본 등이 있다. 그러나 석남본은 현재 그 소재가 불명이고, 니산본과 조종업본은 권2와 권3만이

전해온다. 따라서 왕력과 권1 권2의 枰본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조선 초기 간본 중 왕력과 권1의 경우는 오직 枰본만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枰본의 가치는 더욱 큰 것이다. 왕력은 한국 고대 왕위 계승에 관한 사료를 전해주고 있기에 중요한데, 枰본 왕력의 인쇄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리고 임신본 『삼국유사』 기이편 고조선조의 桓國 운운은 원래 고판본의 桓因의 因을 國으로 잘못 새긴 것이었음은 枰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枰본에는 桓因의 因이 그 이체자인 囧으로 되어 있다. 비록 한 글자이지만 단군신화와 관련된 오랜 논쟁의 일단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핵심어: 枰본 『삼국유사』, 일연(一然), 왕력(王曆), 환인(桓因), 靑자(闕字)

1. 머리말

『삼국유사』의 완질은 1512년(중종 7)에 慶州府에서 李繼福 등이 간행한 중종 壬申본이 있다. 흔히 正德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임신본의 대표적인 印本으로는 서울대本, 晚松文庫本, 順庵手擇本 등이 두루 유통되고 있다. 임신본은 옛 판본의 오류를 바로 잡은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보다 정교한 『삼국유사』의 교감을 위해서는 고판본 『삼국유사』와 임신본을 대교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삼국유사』 古板本으로는 石南本, 松隱本, 泥山本, 趙鍾業本, 梵魚寺本 등이 있었지만, 최근 파본본이 학계에 공개됨으로서 큰 공백을 메워주게 되었다.

필자는 1987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부터 『삼국유사』의 서지 문제와 관련된 원고를 청탁받고 『삼국유사』의 여러 판본을 조사한 바 있다. 그 무렵 필자는 서지학을 전공하는 공주사대 河東鎬교수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들었다. 연세대학교의 손보기교수께서 공주박물관 앞의 어느 고미술가게에서 『삼국유사』의 새로운 판본을 입수했다는 것이었다. 곧 손교수님을 찾아뵙고자 전화로 청을 드렸지만, 여의치 못했다. 그러던 중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적실에 근무하던 박상학선생으로부터 손교수소장 『삼국유사』의 복사 몇 장을 구해 볼 수 있었다. 손교수께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만송본 『삼국유사』를 살펴보기 위해 들렀다가 복사해준 권1의 1장 전후면, 2장 전면, 7장 후면, 8장 전면 등 모두 3장의 복사였다. 이 3장의 복사본을 보고도 그 판본은 임신본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 곧 조선 초기 고판본임이 거의 확실했다. 특히 古朝鮮條 중의 桓因의 因이 國이 아니라 분명히 因의 이체자인 囧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그 의미는 적지 않았다. 필자는 『삼국유사』의 서지학적 고찰이라는 글에서 손교수 소장본을 모씨소장본이라

고 하여 그 약간을 소개하기도 했다. 즉 모씨소장본은 임신본 이전의 고판본이지만, 초판본은 아닐 것이라는 정도였다.¹⁾

26년이 지난 금년에 고손보기교수 소장본 『삼국유사』가 연세대학교에 기증되고 원소장자의 호를 따라 파른본으로 명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학술회의까지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파른본 『삼국유사』를 다른 여러 고판본과 비교하여, 그 특징과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삼국유사』의 찬자와 편찬 시기

『삼국유사』에는 권1부터 권4까지는 저자가 기록되지 않고, 권5에만 國尊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住持圓徑冲照大禪師一然撰이라는 저자명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최남선은 本初에는 권마다 찬자의 名을 表出하였을 것이지만 初梓 혹은 重刊의 際에 脫畧되고 5권의 그것만이 幸存했을 것이라고 이해한 바 있다.²⁾ 조선 초기에 간행된 『동국여지승람』에도 『삼국유사』를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다³⁾고 했다. 『삼국유사』 저자에 관한 기록은 조선 초기에 간행된 고판본의 경우에도 임신본과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의 저자 표기에 대한 이와 같은 혼란으로 인해 『삼국유사』는 일연 단독 저술이 아니라는 주장까지도 나타나게 되었다. 박진태는 일연 단독에 의해 『삼국유사』가 편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노력으

1) 줄고, 『삼국유사의 서지학적 고찰』, 『삼국유사의 종합적 고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52~53쪽.

2) 최남선, 『삼국유사 해제』, 『삼국유사』, 민중서관, 1946, 4쪽.

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6 京畿條.

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 책에 다른 사람의 글들이 문장 곳곳에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했다.⁴⁾ 그러나 다른 사람의 문장을 구체적으로 摘示하지는 않았다. 하정룡의 경우, 『삼국유사』가 일연 한 사람에 의해 편찬되지 않고 몇 명의 편찬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王曆의 편찬자가 다르듯이 각 편목의 편찬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⁵⁾ 물론 『삼국유사』에는 일연의 제자 無極이 덧붙인 기록이 두 군데 있다. 즉, 前後所將舍利條 끝에 첨가한 按說과 眞表傳簡條 다음에 붙인 關東楓岳鉢淵藪石記가 그것이다. 無極은 자신이 첨가한 기록에 無極記라고 明記함으로써 일연의 원래 원문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스승의 글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생각과 함께 無極記라고 밝힌 기록 이외에는 그가 덧붙인 기록이 없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비록 무극이 스승 일연의 手稿에 附記를 붙여 定稿했다고 하더라도 『삼국유사』의 찬자에 무극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 각 편목에 따라 각기 다른 편찬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 드리는 것은 더욱 어렵다.

『삼국유사』 迦葉佛宴坐石條에는 釋尊으로부터 지금의 至元 18년 신사년에 이르기까지 이미 2230년이 지났다는 기록이 있다. 지원 18년(충렬왕 7년, 1281)은 일연이 76세로 왕의 부름을 받아 東都의 行在所로 갔던 때다. 따라서 지금 至元 18년이라는 1281년은 『삼국유사』 찬술 당시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삼국유사』 권5의 撰者에 대한 표기, 즉 國尊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主持圓徑冲照大禪師一然撰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연이 國尊에 책봉되고 79세로 인각사 주지가 되었던 1285년 이후로부터 84세로 입적한 1289년까지의 일연 만년에 『삼국유사』는 제5권까지 脫稿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직함 표기에는 시호 普覺이 빠져 있다. 제자가 스승의 시호를 뺀 직함을

4) 박진태 외,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2002, 61쪽.

5) 河廷龍, 『삼국유사 사료비판』, 민족사, 2005, 142쪽.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⁶⁾는 천혜봉의 견해에 유의하면, 『삼국유사』는 일연 생존 시에 脫稿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삼국유사』가 일연의 사후인 1310년 이후에 완성되었을 것이라는 이근직의 주장⁷⁾은 주의를 요한다. 그는 왕력과 기이편의 후백제견훤조에 보이는 鐵原이라는 지명에 주목하여 이 지명이 사용되기 시작한 1310년 이후에 왕력이 작성되었고, 『삼국유사』의 원고본이 이 이후에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鐵原에 관해 보다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왕력에는 鐵圓(原)에 관한 다음의 기사가 보인다.

- a. 丙辰(896)都鐵圓城(今東州也)
- b. 甲戌(914)還鐵原
- c. 戊寅(918)六月 奮死 太祖卽位于鐵原京

고려 태조가 즉위하고 도읍을 개경으로 옮기면서 鐵圓을 東州로 고쳤고(919), 그 후 충선왕 2년(1310)에 다시 鐵原으로 고쳤다. 이근직은 왕력에 鐵原이, 그리고 紀異篇의 後百濟甄萱條에도 貞明四年戊寅 鐵原京衆心忽變이라고 하여 鐵原京라는 지명이 사용된 사실에 주목했다. 그러나 a의 鐵圓郡(今東州也)에서 지금이라고 한 것은 東州라는 지명이 사용되고 있던 시기, 즉, 919년으로부터 1310년 사이의 어느 때에 해당할 수 있기에 왕력 찬자나 일연이 붙인 註일 수도 있다. 이근직의 경우처럼, 이를 왕력 찬자가 참고로 했던 1310년 이전의 사료 중의 原註라고만 보아야할 근거는 없다. 이근직은 b와 c, 그리고 後百濟甄萱條의 鐵原이라는 지명 표기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到彼岸寺鐵造毘盧遮那

6) 천혜봉, 『삼국유사 판각의 시기와 장소』, 『삼국유사연구』 창간호, 2005, 217쪽.

7) 이근직, 『삼국유사 왕력의 편찬 성격과 시기』, 『한국사연구』 101, 1998, 29~43쪽.

佛造像銘記 중의 鐵員郡을 鐵圓郡의 동음이자르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圓과 原은 다른 글자이지만 同音異字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의 金海는 고려시대에 여러 차례 개칭되었는데, 이에 관한 기록이 『高麗史』 지리지에 전한다. 이에 의하면, 태조 23년(940)에 金海小京을 金海府로, 성종 14년(995)에 金海安東都護府로, 현종 3년(1013)에 金州로, 원종 11년(1270)에 金寧都護府로, 충렬왕 34년(1308)에 金州牧으로, 충선왕 2년(1310)에 金海府로 각각 개칭했다. 『三國遺事』에는 金海府 및 金州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 d. 本朝史略云 太祖天福五年庚子改五伽耶名 一金官(爲金海府)
 …… 紀異篇 五伽耶條
 e. 駕洛國(一作伽倻 今金州) …… 王曆

기이편의 주 金海府는 일연의 주가 아닌 것 같다. 이는 아마도 『本朝史略』에서의 인용으로 태조 23년(즉 天福 5년)에 김해부로 개칭했던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것을 충선왕 2년(1310)에 개칭한 金海府로 보아야 한다면 이 주는 일연 사후에 덧붙인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e의 金州까지도 왕력 찬자의 주가 아니라 그가 참고했던 자료의 원주를 전채한 것이라고 보아야할 이유는 없다. 이처럼 『삼국유사』 주는 대부분 저자 일연이 붙인 것이지만, 가끔 일연이 참고했던 원 자료에 붙어 있던 주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도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연의 사후인 1310년 이후에 『삼국유사』가 완성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 드리기는 어렵다. 『삼국유사』는 일연이 인각사에 주석하던 79세로부터 84세에 이르는 만년에 권5까지 모두 탈고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王曆篇의 문제

필자는 일찍이 왕력과 기이편 이하의 제편의 기록과를 비교하여 여러 괴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왕력은 일연이 직접 쓴 글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⁸⁾ 王曆의 기사와 기이편 이하 『삼국유사』 본문의 기록 사이에는 서로 다른 내용이 보인다. 즉 在位年數를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 신라에서의 諡號나 麻立干 칭호의 사용 시기에 대한 상이한 기록, 백제 武王의 존재 여부에 대한 엇갈린 주장, 駕洛王曆과 『駕洛國記』 사이의 상이한 기록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왕력과 『삼국유사』 본문 사이의 엇갈린 기록은 우연한 착오라기보다는 왕력이 일연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기에 생긴 문제로 필자는 이해했다. 박미선도 왕력이 일연에 의해 찬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왕력과 기이의 차이는 서술상의 차이를 넘어 전거 자료의 차이를 의심케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⁹⁾ 아무래도 일연이 왕력을 직접 집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왕력이 일연에 의해 집필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연이 이를 『삼국유사』에 포함시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연 이후의 누군가에 의해 『삼국유사』에 추가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다소 애매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일연 이후의 누군가에 의해 왕력이 『삼국유사』에 추가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필자의 추측은 『삼국유사』의 9篇目에 王曆第一이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함으로써 초래한 오류였다. 『삼국유사』는 9편목으로 분류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王曆第一, 紀異卷第一, 興法第三, 塔像, 義解第五, 神呪第六, 感通第七, 避隱第八, 孝善第九

8) 줄고, 『삼국유사 왕력편 검토』, 『동양학』 15, 1985.

9) 박미선, 『일연의 신라사 시기구분 인식』, 『역사와 현실』 70, 2009, 149쪽.

이처럼 王曆第一이 『삼국유사』 九篇目 중의 하나로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연이 왕력을 『삼국유사』의 한 부분에 포함시키고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三國遺事』 王曆第一이라고 하여 왕력 앞에 『삼국유사』를 붙여서 강조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편목의 기록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다. 王曆第一과 興法第三 사이에는 第二가 없고 第一이 중복되었다. 아마도 紀異第一은 第二의 오류였을 것이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篇次를 王曆第一, 紀異第二, 興法第三으로 정리한 崔南善의 견해는¹⁰⁾ 일연의 원고본에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紀異卷第一의 경우, 불필요한 卷자가 붙어 있다. 『삼국유사』 권제일 기이제일이라고 해야 할 위치에 『삼국유사』 권제일이 빠지면서 생겨난 혼란인 것 같다. 그렇다고 의문이 모두 해소된 것은 물론 아니다. 版心에는 제1장으로부터 제15장까지의 왕력 부분을 『삼국유사』 卷一로 새겼는데, 기이편이 시작되는 제1장으로부터 제37장까지의 판심 또한 『삼국유사』 卷一로 표기하고 있어서 권일이 중복되는 혼란이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 권2로부터 권5까지는 권이 시작하는 첫 장의 1행과 권이 끝나는 마지막 장의 10행에 三國遺事卷第二와 같이 그 권의 시작과 끝을 표시했는데, 삼국유사권제일의 경우는 시작하는 첫머리에는 없고 그 끝에만 기록해 두었다.

왕력을 일연이 직접 집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누군가에 의해 편찬되어 전해지고 있던 왕력을 『삼국유사』에 수록한 것은 일연이었다. 그는 『삼국유사』의 내용을 아홉 개의 편목으로 분류하면서, 그 第一로 왕력을 수록했던 것이다.

10) 최남선, 『삼국유사 해제』, 『삼국유사』, 민중서관, 1946, 2~3쪽.

4. 『三國遺事』 初刊本の 문제

『삼국유사』의 初板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간행된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해서는, 일연 간행설과 무극 간행설, 그리고 조선초 간행설 등이 있다. 일연비문에는 저서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삼국유사』는 보이지 않는다. 최남선에 의하면, 일연의 전체 100여 권의 저서 중, 그 서명을 밝히지 않은 20여 권 중에 『삼국유사』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물론 미간행으로 인해 비문에 명기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결국 최남선에 의하면, 일연이 간행했다는 것이다. 비를 세울 당시까지는 완성고본이 유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柳譯一의 경우다.¹¹⁾ 일연 만년에 탈고되고 미간행으로 전해지던 『삼국유사』를 그가 입적한 뒤에 제자 無極이 검토하여 처음으로 간행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高橋亨의 설인데,¹²⁾ 필자도 無極이 1310년대에 初刊했을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¹³⁾ 물론 무극이 『삼국유사』를 검토하고 두 기록을 덧붙였다는 사실이 간행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천혜봉은 일연의 직함에 국존의 시호가 없는 것에 주목하고 제자 무극이 『삼국유사』를 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제자가 간행한 스승의 찬술에 국존의 시호를 표시하여 추앙하지 않을 리 없다는 이유다.¹⁴⁾ 따라서 찬자의 手稿에 제자 무극이 補記하여 定稿한 후 이루어진 傳寫流通本이 전승되었을 것이라고 한다.¹⁵⁾ 저자의 직함 표기를 굳이 간행 시로 한정해서 볼 필요는 없다. 원고 탈고 때의 직함 표기로도 볼

11) 柳譯一, 『三國遺事の 文獻變化 様相과 變因』, 『삼국유사연구 상』,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3, 269쪽.

12) 高橋亨, 『三國遺事の註及檀君傳說の發展』, 『朝鮮學報』 7, 1955, 66~67쪽.

13) 줄고, 앞의 글, 1987, 36쪽, 42쪽

14) 천혜봉, 앞의 글, 2005, 217쪽.

15) 천혜봉, 앞의 글, 2005, 224쪽.

수 있기 때문이다. 직함 표기를 굳이 편찬 시기와 관련지어 시호가 빠졌다고 볼 이유는 없다. 무극의 비문에 『삼국유사』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주목하고 무극의 생존 시에는 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¹⁶⁾ 그러나 무극과 『삼국유사』와 관계는 그의 비문에서 언급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공민왕 10년(1361) 1월에 작성된 慶州司首戶長行案序에는 新羅始祖 赫居世王條의 내용 일부를 요약하여 인용하고 있다.¹⁷⁾ 고려후기의 전적에 『삼국유사』가 인용된 유일한 사례이다. 이때의 『삼국유사』가 간본인지 필사본인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하정룡은 필사본이었을 것¹⁸⁾이라고 하고, 오히려 허홍식은 간본이었을 가능성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보았다.¹⁹⁾ 사본에 비해 판본의 유통이 더 용이하지만, 『삼국유사』의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고려 판본은 없고, 조선 초기 판본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삼국유사』 초간본은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를 쉽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조선 초의 고판본의 경우도 초간본이라는 견해와 중간본이라는 주장이 엇갈려 있다. 류부현은 중간본이라고²⁰⁾ 하는데, 천혜봉은 초간본이라고 한다. 조선 초기 판본을 조사한 바 있는 천혜봉은 이들 판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까지 확실하게 알려진 오래된 판본으로는 조선 초기에 판각한 舊松隱藏本과 舊泥山藏本, 그리고 梵魚寺藏本을 합친 권 제2~5의 3책뿐이다. 이들 장본의 판각된 글자체와 그 새긴 기법을 고려

16) 하정룡, 앞의 책, 2005, 16쪽, 279쪽.

17) 盧明鎭, 『한국고대중세고문서』 上,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340쪽.

18) 하정룡, 앞의 책, 2005, 290쪽.

19) 허홍식, 『삼국유사 찬술의 시기와 장소』, 『삼국유사연구』 창간호, 2005, 190쪽.

20) 류부현, 『삼국유사의 교감학적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135쪽.

이래의 전통적 판각법에 입각하여 살펴본 바, 그것이 고려의 既刻本을 翻刻한 것이 아니고 새로 版刻用 筆書本을 마련하여 최초로 간행한 初刻版의 성격과 특징을 나타내 주고 있음이 감식되었다. 이들 初刻本은 版式, 紙質, 避諱法, 그리고 中宗朝 版本에 나타나고 있는 原刻記錄과 그 留版鑢藏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선 태조 3년(1394) 4월 『삼국사기』를 간행한 전후 무렵 慶州府에서 上梓된 것이다.²¹⁾

곧 찬자 일연이 成稿하고 제자 무극이 補記하여 定稿한 것이 다양하게 傳寫流布되다가 조선 초에 판각되었다는 것이 천혜봉의 주장이다. 하정룡 또한 1394년을 전후한 시기에 간행된 선초본이 초간본에 해당한다고 했다. 고판본에 麗末本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一然碑에 유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序跋文 및 목차가 없고, 서술상의 일관성이 없는 등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²²⁾ 필자는 조선 초기 판본을 초판본으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²³⁾ 한 바 있고, 채상식은 조선 초에 판각된 『삼국유사』는 적어도 고려시기에 간행된 판본을 토대로 하여 간행했을 것으로 보았다.²⁴⁾

조선 초의 고간본을 초간본으로 보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闕字와 避諱代字 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조선 초기 고판본에도 꺾자의 사례가 여러 차례 보인다. 파른본 및 석남본에는 글자를 새기지 않은 채 빈칸으로 남겨둔 곳이 여러 차례 보이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왕력 1후 7행 10좌 都○禮城, 아마 (慰)禮城의 慰자가 빠졌을 것이다.

21) 천혜봉, 앞의 글, 2005, 224쪽.

22) 하정룡, 앞의 책, 2005, 276쪽.

23) 줄고, 「삼국유사의 연구 현황」, 『불교연구』 26, 2007, 85쪽(『일연과 삼국유사』, 일연학 연구원, 2007에 채수록).

24) 채상식,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의 자료적 가치」, 『지역과 역사』 27, 2010, 222쪽.

2. 왕력 3전 10행 6우 今○山, 아마 梁자가 빠진 경우일 것이다.
3. 왕력 3후 3행 7좌 ○磨王之女, 아마 祗磨王之 祗자가 빠진 듯하다.
4. 왕력 4전 5행 15좌 및 6행 10우 名○○一作伯句, 아마도 伯固 두 자가 빠졌을 것이다.
5. 왕력 4장 11행 고구려역, 第九故國川王 己○立. 己(未)의 未가 빠졌을 것이다.
6. 왕력 4후 5행 7 奈○尼叱今. 解자가 빠진 것이다.
7. 왕력 4후 5행 13-15 第十○○○. 山上王 3자가 빠졌다.
8. 왕력 4후 6행 31우 一作貴須○○○之子. 肖古王 3자가 빠졌다.
9. 왕력 4후 8행 6좌 第十助○尼叱今. 賁자가 빠진 경우다.
10. 왕력 11행 6 一作沙○
11. 왕력 5전 4행 4 高貴鄉○
12. 왕력 7전 7행 4우 ○禮 生 夫人昔氏
13. 왕력 7전 9행 16우 名臣○
14. 왕력 15전 5행 6좌 陵○○○東 向洞
15. 권1, 1장前 6행 19자, 즉 龍感女登而生○○으로 되어 있는데, 파른본에는 炎자가 가필되어 있다. 龍이 女登에게 교감하여 炎帝를 낳았다는 의미일 것이기에 炎이 빠진 경우다.
16. 권1, 29장後 4행 10자 傳○於汝, 파른본에는 付자를 가필했다. 疇昔之夢 傳○於汝는 어제 밤 꿈을 너에게 준다는 의미이기에 付자가 빠진 것이다.
17. 권1, 34장後 2행 21자, 前百濟王 司○正卿扶餘隆. 稼자가 빠진 경우다.
18. 권2, 9장前 1행 1자, 作歌唱之 以杖打岸 ○可見夫人矣. 아마도 則자가 빠졌을 것이다.

이처럼 조선 초기 판본으로 알려진 석남본 및 파른본에는 여러 곳에 缺字가 있다. 특히 왕력에는 결자가 더 많은 편이다. 여러 결자가 있는 조선 초기 판본을 초간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찍이 석남본의 필사자

는 왕력 고구려역 第九故國川王條의 己○ 부분에 두주를 붙여 己下當有字而原刻缺之 非原刊本可知 又可想其覆刻本이라고 하였다. 즉 결자에 주목하여 석남본은 원간본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필자도 권1 1장前 6행 19자의 결자를 지적하면서 모씨소장본(파른본)은 초판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²⁵⁾ 이에 대해 하정룡은 초판본에도 인쇄 시기에 따라 결자는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조선 초기 판본이 초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⁶⁾ 그러나 왕력 및 권1과 권2의 잔본에서 무려 18번이나 결자가 보인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단순히 인쇄 시기에 따른 결자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휘와 관련된 문제를 보자. 왕력의 경우 피휘대자의 사례가 많은데, 특히 고려 혜종의 휘 武자를 대신해서 虎자를 쓴 사례와 성종의 휘 治자를 대신해서 理자를 쓴 사례는 대단히 많다. 후한의 武帝, 당의 武后와 武宗의 武자는 물론 중국 연호 중 후한의 建武 및 東晉의 建武 등의 武자를 虎자로 바꾸어 썼다. 그러나 송 武帝 및 당의 연호 武德의 武자는 그대로 사용했다. 고구려의 第三大武神王과 백제의 第二十五武寧王, 그리고 신라의 第四十五神武王의 武자는 모두 虎자로 대신했다. 그러나 신라의 太宗武烈王 및 文武王의 무자는 그대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왕력에서 武자 대신에 虎자를 쓴 사례는 몇 군데 더 있다. 권2의 경우, 신라의 文武王을 文虎王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文武大王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백제 武王의 경우는 武자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처럼 고려 시대의 피휘법이 적용된 사례가 많은 것은 고려시대에 이미 존재했던 초판본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가끔 피휘법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경우는 조선시대 초기 重刊時에 고쳐졌을 가능성이 있다. 왕력 중 고구려의 第十四烽上王은 백제 왕력을 서술하는 난

25) 줄고, 앞의 글, 1987, 53쪽.

26) 하정룡, 앞의 책, 2005, 72쪽, 205쪽.

에 잘못 새겨놓았는데, 이런 오류는 파본본이나 석남본이 마찬가지다. 역시 조선 초의 초간본을 초간본으로 보기 어렵게 하는 사례에 속한다. 고려시대의 피휘법이 적용된 사례가 많은 것은 고려시대에 이미 존재했던 초판본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가끔 피휘법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경우는 조선시대 초기 重刊時에 고쳐졌을 가능성이 있다.

5. 여러 고판본과 파본본

지금까지 알려진 『삼국유사』 조선 초기 고판본으로는 石南本, 松隱本, 趙鍾業本, 尼山本, 梵魚寺本 등이 있고, 이번에 공개된 파본본까지 6종이 된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5권 완질로 전하는 것은 없다. 1940년대에 宋錫夏가 소장했던 石南本은 王曆과 제1권만의 殘本인데, 현재는 그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본을 模寫한 筆寫本이 高麗大學校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다. 이 石南本이 壬申本 이전의 판본임은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것도 조선 초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판본의 행수, 자수 등의 체제도 임신본과 같다.

松隱本은 원래 權憲奎가 소장했던 것을 1939년에 鶴山 李仁榮의 수중에 들어갔다가 해방 직후 松隱 李秉植이 소장하는 바 되었고, 현재는 郭永大가 소장하고 있다.²⁷⁾ 또한 이 본은 국보 제306호로 지정되어 있다. 松隱本은 王曆 및 卷1·2가 없고, 卷3·4·5만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卷3의 제1장으로부터 제6장까지와 卷5의 마지막 4장인 27, 28, 29, 30장,

27) 이 본은 소장자의 號에 따라 鶴山本, 松隱本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의 소장자는 郭永大이다. 명칭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흔히 사용해온 바에 따라 松隱本이라고 한다.

그리고 跋文이 없는 殘本이다. 松隱本도 조선 초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송은본은 권5의 제1장이 1986년에 간행된 국보 도록에 소개된 바 있고, 권4의 제1장이 문화재청에서 인터넷 상으로 공개하고 있을 뿐, 아직 그 전체는 학계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高麗大學校 중앙도서관에는 筆寫本 『三國遺事』가 소장되어 있다.²⁸⁾ 이것은 1940년 이후로부터 光復前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²⁹⁾ 王曆과 제1권은 石南本에, 그리고 제3권 이하는 松隱本에 의지하여 模寫한 것이다.³⁰⁾ 따라서 王曆의 제10장 및 제11장 앞면, 제2권, 제3권의 처음 6장과 제5권의 마지막 4장 및 발문이 빠져 있다. 이것은 비록 필사본이고, 完本도 아니지만, 石南本의 소장처가 알려지지 않고, 松隱本 또한 아직 학계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에 그 가치가 높다.³¹⁾ 이 필사본에 대해 류부현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 필사본은 저본의 체제와 문자가 충실하게 필사된 것이다. 저본의 행자수를 그대로 따르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란으로 두었으며, 저본에서 판목의 완결로 인해서 壞字가 된 것도 괴자 그대로 필사를 하여 저본과 다름없는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³²⁾

왕력과 권1의 다른 인본이 없는 상황에서는 비록 필사본이라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를 저본과 다름없는 사료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28)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영인본으로 간행한 晚松文庫本 『三國遺事』, 昨晟社, 1983의 부록으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필사본 『三國遺事』도 함께 수록했다.

29) 李基白, 『三國遺事 筆寫本』, 『高大圖書館報』 2, 1979, 4쪽.

30) 이 필사본의 앞부분에 『依石南宋錫夏氏濫麗樓所藏古板本謄寫第壹卷及王曆 第三·四·五卷 則依鶴山李仁榮氏藏本也 而二本恐是同一板也』라는 기록이 있다.

31) 昨晟社에서 1983년에 영인하여 간행한 『晚松文庫本三國遺事』의 부록으로 이 필사본이 영인되어 있어 쉽게 볼 수 있다.

32) 류부현, 앞의 책, 2007, 118쪽.

고 하는 평가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한 예를 보자. 석남본의 필사본 권1의 8장 후면 3행 1자의 경우, 高자로 되어 있다. 즉 東明聖帝 姓 高氏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高原作言而後人筆改라는 필사자의 주가 붙어 있다. 석남본 원본에는 원래 高가 아니라 言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파본본과 임신본에도 言으로 되어 있다. 원본의 言을 후인이 改筆하여 高자로 고쳤고, 필사자는 개필에 따라 高자로 필사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석남본의 필사본 권1의 34장 후면 2행 7자는 必자로 되어 있는데, 파본본과 임신본에는 心으로 되어 있다. 일은 반드시 옛 것을 본받는다[事必師古]는 문맥으로 보면 必자가 맞다. 필사본에는 必作心而後人改爲必이라는 두주가 있다. 석남본 원본에는 心자로 되어 있었는데, 누군가 이를 必자로 고쳐 두었고, 필사자는 이를 따라 必자로 필사했던 것이다. 이상의 두 사례는 그나마 두주가 있어서 가필의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두주를 붙이지 않은 채 가필에 따라 필사한 경우가 없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필사본 『삼국유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尼山本 『삼국유사』는 권2의 零本 1책이다. 이 책은 전체 49장 중 제 17, 18, 19, 20장의 4장의 결락이 있다. 남권희에 의하면, 니산본은 판심 부분의 魚尾가 고려본에서 간혹 보이는 좁은 면적의 형태로 되어 있고, 피휘가 일관성 있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기에 간행 시기는 조선 초기일 것이라고 한다.³³⁾

필사는 1992년 봄에 충남대학교 趙鍾業교수 개인 소장의 『삼국유사』 권2의 零本 1冊을 조사했는데, 이 또한 鮮初本이었다. 소장자도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마도 서지학 전공자인 윤병태교수가 이를 임신본으로 소개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발표자는 이 판본에 대해서 문화일보에 간단히 소개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33) 남권희 「니산본 삼국유사의 서지적 고찰」, 『서지학연구』 5·6합집, 1990, 218~219쪽.

板式이 일정하지 못한 壬申本에 비해 趙鍾業本은 일정한 판식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 본을 다른 여러 본과 비교하여 글자의 異同을 살펴본 결과, 조선초기본인 니산본과는 같은데, 여러 임신본과는 다른 글자가 60여자나 있었다. 조종업본에서의 太자가 여러 임신본에는 大자로 바뀐 것이 30여자나 되었다. 이처럼 판식과 글자의 이동으로 볼 때, 조종업본이 임신본 이전의 고판본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본도 조선초기본이라는 사실은 避諱代字의 용례로 알 수 있다. 조종업본에는 고려 혜종의 휘인 武자를 虎자로 바꾸어 쓴 경우와 그대로 쓴 예가 있다. 이는 이 본이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사실을 반영하는데 고려시대의 피휘대자의 원칙이 일관성 있게 지켜진 까닭이다. 조종업본을 같은 조선초기본인 니산본과 비교해 보면, 니산본에 더 많은 失劃이 나타난다. 간단한 조사로도 10여 자 이상이 보인다. 조종업본이 니산본보다 먼저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³⁴⁾

조종업본 『삼국유사』는 권2의 49판 중 제9판이 결락되어 이를 필사로 보충하였고, 49장의 후엽이 결락되었다. 인각사 일연학연구소가 2003년에 영인본으로 펴낸 『삼국유사』 중 권2는 조종업본을 저본으로 활용한 것이다.

범어사본 『삼국유사』는 권4와 권5의 1책으로 5권의 제26장과 제27장이 결락된 잔본이다. 光武 11년(1907)에 吳擘月스님이 기증한 것이라고 하는데, 천혜봉은 이를 조선 초기 판본으로 감식했다.³⁵⁾ 범어사본에는 松隱本에서 결락된 권5의 제28, 29, 30장이 남아 있어서 이를 보충할 수 있다. 그리고 권4에는 구결로 懸吐가 되어 있다.³⁶⁾ 인각사 일연학연구소가 간행한 영인본 『삼국유사』의 권4와 권5는 범어사본을 저본으로 했다. 파른본도 조선 초기 고판본이다. 그런데 같은 조선 초기 고판본으로

34) 줄고, 『새로 찾은 삼국유사 고판본』, 『문화일보』, 1992. 7. 7.

35) 천혜봉, 앞의 글, 2005, p.43.

36) 채상식, 앞의 글, 2010, 211쪽.

알려진 석남본의 필사본과는 다른 글자가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 예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권1 12장후 4행 7자 필사본에는 說자인데 파른본과 임신본은 設자다.

立邦設都乎로 設자가 맞다. 필사본에는 說恐設字誤刻이라는 두주가 있다.

2. 권1 25장후 3행 20자, 21자. 필사본에는 頌王, 파른본과 임신본에는 頌玉으로 됨.

3. 권1 28장전 5행 8자 필사본에는 郎인데, 파른본과 임신본에는 娘이다. 娘等以美菓餽之의 전후 문맥으로 보면 娘이 맞다. 필사본에는 郎恐娘字誤刻이라는 두주가 있다.

4. 권1 36장전 10행 6右. 필사본은 火, 파른본과 정덕본은 人이다. 전후 문맥으로 京師人 望火의 火가 맞다. 석남본의 火자는 후인에 의한 가필일 가능성이 있다.

5. 권1 33장전 9행 5자. 필사본 擅, 파른본 檀, 임신본 什 등으로 각각 다르다.

같은 조선 초기 고판본으로 보이는 석남본과 파른본 사이에 다른 글자가 나타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선 필사본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석남본에는 후인의 가필이 있었고, 필사자는 가필에 따라 필사한 사례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의 1과 3의 예에서 보듯, 필사자가 두주까지 붙여서 문제를 제기한 글자의 경우는 단순히 가필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석남본과 파른본은 서로 다른 판본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필사본에 의지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기이편 고조선조의 桓圉(謂帝釋也)의 圉은 파른본에 의하면 圉자, 즉

因의 이체자로 되어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謂帝釋也라는 주를 감안하면, 囷은 因자가 분명하지만, 임신본에 이르러 國자의 속자로 변해 버렸다. 고판본의 囷因이 임신본에서 囷國으로 잘못 새겨진 것이다. 물론 囷國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최남선은 囷國에 주목하여 이것을 國土人格觀이라고 이해하고 환국은 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불교의 影像을 幻覺한 자는 이러한 환을 환인의 환에 견주고 臆見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삼국유사』에 囷因으로 판각된 것을 환인이라고 망령되게 고치기를 사양하지 아니하였다고³⁷⁾ 주장했다. 그리고 김영태는 囷자는 국내의 자전류에는 찾아보기 어렵고 금나라 韓孝彦이 편찬한 『篇海』에 의하면 뜻은 미상이고 음은 참이라고 하였다.³⁸⁾ 그러나 조정철은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新集藏經音義隨函錄』의 甫因과 『文殊師利普超三昧經』의 甫因의 사례를 찾아 囷은 因의 이체자임이 확실하다고 하였다.³⁹⁾ 囷자가 因자의 이체자로 쓰였던 고려대장경의 사례에서 보듯, 囷은 因의 이체자임은 분명하다. 囷因을 帝釋이라고 한 것은 일연의 불교적 세계관에 의한 해석이다. 제석은 도리천을 주재하면서 33천과 4천왕을 통솔하고 불법을 보호하는 신이다.

37) 최남선, 「단군론」, 『육당최남선전집』 2, 현암사, 1973, 97쪽.

38) 김영태, 『자세히 살펴본 삼국유사 1』, 도피안사, 2009, 262쪽.

3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과 박물관이 주최한 囷은 因 삼국유사 기증기념 학술회의(2013년 4월 26일, 연세대학교 학술정보관 720호) 토론문 참조.

6. 맺는 말

조선 초에 간행된 고간본 『삼국유사』로는 석남본, 송은본, 니산본, 조종업본, 범어사본 등이 알려져 왔지만, 왕력 및 권1의 석남본은 현재 그 소재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니산본과 조종업본은 권2와 권3만이 전해 온다. 따라서 왕력과 권1 권2의 파른본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조선 초기 刊本 중 왕력과 권1의 경우는 오직 파른본 만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파른본의 가치는 더욱 큰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석남본의 왕력은 제10장 좌우와 제11장의 右葉이 缺落되었는데, 이에 비해 파른본의 왕력은 결락이 없다. 왕력에는 제왕의 世系, 紀年, 간략한 치적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 등을 수록했다. 그리고 왕력의 기록 중에는 『三國史記』와 다른 史料를 전해 주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고구려의 시조를 단군의 아들이라고 한 기록이나 신라사를 세 시기로 구분한 기록 등이 그렇다. 이 때문에 왕력은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 특히 王位繼承에 관한 연구의 중요한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임신본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桓國운운은 원래 고판본의 桓因의 因을 國으로 잘못 새긴 것이었음은 파른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파른본에는 桓因의 因이 이체자인 囿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석남본의 왕력 및 권1, 니산본 및 조종업본의 권2, 광영대본의 권3·4·5를 합친다면 조선 초기 고판본 『삼국유사』 完秩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석남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현재 상황으로는 완질의 고간본 『삼국유사』의 확보란 여전히 불가능했다. 다행히 금년에 왕력 및 권1과 권2의 파른본이 학계에 공개됨으로서 이제 고간본 『삼국유사』 완질을 확보할 토대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광영대본의 공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문헌〉

과른본 『삼국유사』

『新增東國輿地勝覽』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晚松文庫本 三國遺事』, 昨晟社, 1983

盧明鎬, 『한국고대중세고문서』 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박진태 외,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2002.

河廷龍, 『삼국유사 사료비판』, 민족사, 2005.

류부현, 『삼국유사의 교감학적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김영태, 『자세히 살펴본 삼국유사 1』, 도피안사, 2009.

최남선, 「삼국유사 해제」, 『삼국유사』, 민중서관, 1946.

_____, 「단군론」, 『육당최남선전집』 2, 현암사, 1973.

高橋亨, 「三國遺事の註及檀君傳説の發展」 『朝鮮學報』 7, 1955.

李基白, 「三國遺事 筆寫本」, 『高大圖書館報』 2, 1979.

柳鐸一, 「三國遺事の 文獻變化 樣相과 變因」, 『삼국유사연구 상』,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3.

김상현, 「삼국유사 왕력편 검토」, 『동양학』 15, 1985.

_____, 「삼국유사의 서지학적 고찰」, 『삼국유사의 종합적 고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_____, 「삼국유사의 연구 현황」, 『불교연구』 26, 2007.

남권희 「니산본 삼국유사의 서지적 고찰」, 『서지학연구』 5·6 합집, 1990.

천혜봉, 「삼국유사 판각의 시기와 장소」, 『삼국유사연구』 창간호, 2005.

허홍식, 「삼국유사 찬술의 시기와 장소」, 『삼국유사연구』 창간호, 2005.

이근직, 「삼국유사 왕력의 편찬 성격과 시기」, 『한국사연구』 101, 1998.

박미선, 「일연의 신라사 시기구분 인식」, 『역사와 현실』 70, 2009.

채상식,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의 자료적 가치」, 『지역과 역사』 27, 2010.

투고일: 2013. 06. 05 심사일: 2013. 06. 19 게재확정일: 2013. 06. 21

〈Abstract〉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the Old and Pareun Editions of *Samguk Yusa*

Kim, Sang-Hyun*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unique features and significance of the Pareun Edition of *Samgukyusa* by comparing it with other editions of the work. The name of the author, Ilyeon, is not included in Books 1, 2, 3 and 4 of *Samgukyusa*; only volume 5 has the name written in it. Considering the fact that Ilyeon's posthumous title for the work, Bogak, is not used with the author's name,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Samgukyusa* was completed between 1285, when Ilyeon became the chief priest of Ingaksa Temple and master of the King at the age of 79, and 1289, when he attained nirvana at the age of 84. There are two additional remarks by Mugeuk, Ilyeon's disciple, in the original *Samgukyusa*. These notes are distinguished from Ilyeon's text by Mugeuk's name written under them. It is believed that Mugeuk published and popularized *Samgukyusa*, and if so, his is likely the first edition. However, there is no definite evidence that *Samgukyusa* was published in the Goryeo period. Even though a book published in the 10th year (1361) of the King Gongmin of Goryeo quotes from *Samgukyusa*, it is not easy to elucidate whether the quotation from *Samgukyusa* came from a printed copy or a handwritten one.

* Emeritus professor of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There are many problems in considering the Old Edition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as the first edition of *Samgukyusa*. Omitted characters and alternative characters, used to avoid using the letters of monarchs' names, ar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roblems. Omitted letters are widely found in the Old Edition. In the Pareun Edition, in the first and second volumes of the 'Wangryeok' ('A Chronology of the Kings') chapter, there are eighteen blank columns in which no characters are engraved. There are several cases in which '虎' is used to replace the name of the King Hyejong of Goryeo, and '武' and '理' in place of '治' in the name of King Seongjong of Goryeo. These widely found substitutions suggest that this edition of *Samgukyusa* inherited the style of a first edition which already existed in the Goryeo period. Characters of rulers' names are occasionally found in the edition, and these characters were probably fixed when the book was published for the second time in the early Joseon period.

Different copies of the Old Edition of *Samgukyusa* exist. However, the Seoknam Edition is missing and only the second and third volumes of the Nisan and Jo Jong-eop Editions are still extant. Therefore, the Pareun Edition with the 'Wangryeok chapter' and the first and second volumes has a great significance. The Pareun Edition is the sole extant copy of *Samgukyusa*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complete with the 'Wangryeok' chapter and the first volume. The 'Wangryeok' chapter contains a great deal of records concerning royal succession in the ancient Korean kingdoms, and is of great historical value. The 'Wangryeok' chapter of the Pareun Edition is in relatively good condition. The Pareun Edition can also be used to confirm the mistake in the Imsin Edition, where the character '國' is mistakenly

substituted for ‘因’ in the word ‘桓因’ in the ‘Giyi’ (‘Mythology’) chapter of the ‘Gojoseon’ article of the Old Edition. In the Pareun Edition, ‘因’ in ‘桓因’ is engraved as ‘囡’, which is one of many variant forms of the character ‘因’. This one character is important enough to end the controversy of many decades concerning the myth of Tan-gun's birth.

Key Words: The Pareun Edition of *Samgukyusa*, Ilyeon, the ‘Wangryeok’ Chapter(‘A Chronology of the Kings’), Hwan-in, Omitted Letters.

